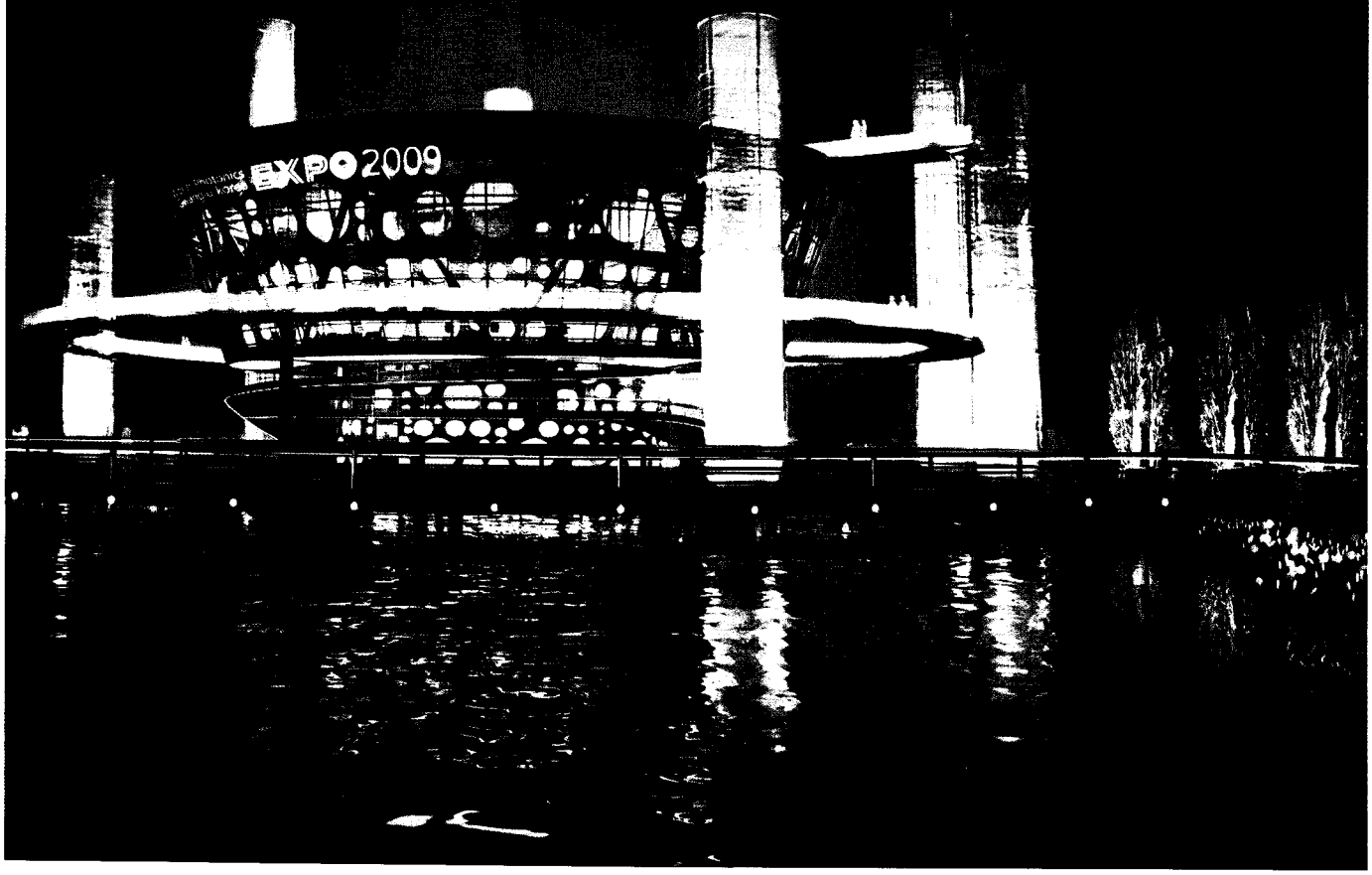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미리살펴보기 1:주제전시
2:산업전시 컨퍼런스
3:빛의 축제

# 세상의 모든 빛!
# 빛의 도시 광주에서!

**WORLD PHOTONICS EXPO 2009 GWANGJU, KOREA** www.photonics-expo2009.org



#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미리 살펴보기 3탄 빛의 축제

# First Preview - Themes for World Photonics Expo 2009 Gwangju, Korea

# L i g h t F e s t i v a l

빛은 인간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조명으로의 목적을 삼는 것이 기본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빛의 의미는 조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다양한 기능과 역할 또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빛조명의 발달에 따라 과거의 난방, 취사, 보호 등의 원시적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의 활동시간을 넓히고, 인간의 생활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능을 제공한다.

빛으로 만드는 도시환경은 지역의 가치관, 문화, 전통을 도시 공간이라는 역사, 사회, 경제, 문화의 종합적인 흐름 안에서 조성된다.

도시 환경으로서의 빛은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 다리, 도로, 공원 등의 장소적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야간의 빛은 새로운 공간성을 창조하고 개성연출과 함께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빛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에게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빛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는 도시의 활력을 표현해 줌으로써 지자체의 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야기시키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도시의 마케팅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축제 요소로서의 빛은 종교적 행사로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불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표

Light is basically used by human beings to brighten the darkness. However, such a meaning of light is changed by diversifying its functions and roles or social mean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lighting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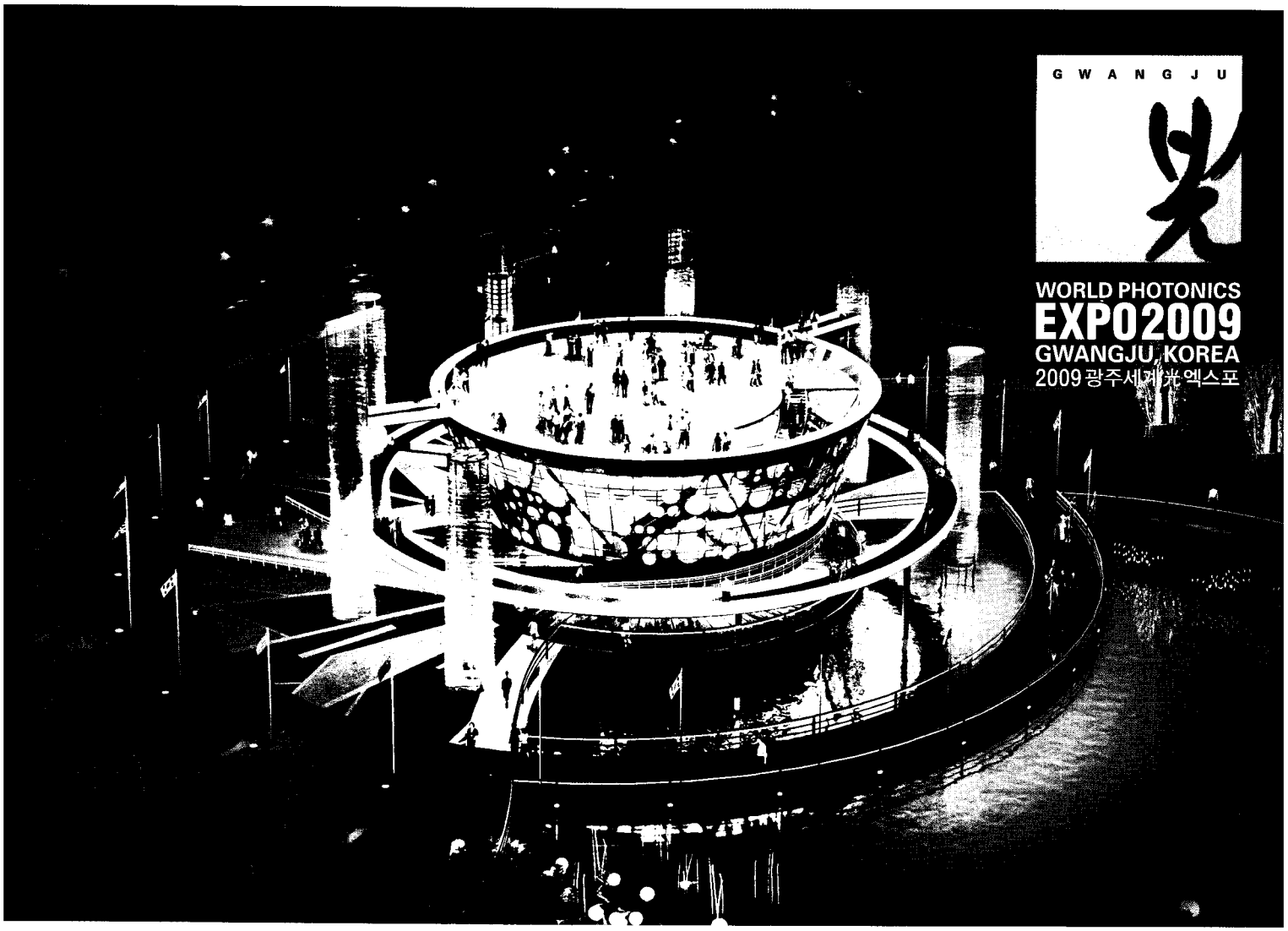
Beyond the primitive functions of the past including heating, cooking or protecting, the development of lighting expands the possible activity hours of human beings and puts new vitality into living spaces.

The urban environment created by light is formed in the comprehensive flow of history, society, economy and culture, which is the urban space including values, cultures and traditions.

Light as the urban environment presents various appearances depending on the spatial features including buildings, bridges, roads and parks forming a city. Night ligh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new spatiality, exposing the characteristics and making the identity of a city.

Furthermore, one of the critical roles of light in modern society is the play function provided to humans. Diverse events through light lead to the activation of tourism and economy of a local authority by expressing the vitality of a city and perfectly performing the functions for an economic ripple effect and city marketing.

The use of light as an element of festival has historic background with meaning as a religious event. Fire was used to express delight and gratitude.




현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불꽃의 크기와 밝기, 파괴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유럽의 경우 축하의 모닥불을 계승한 것이 조명과 불꽃놀이이다. 바로크 시대에 절정을 맞은 불꽃놀이는 폭죽과 조명탄과 함께 어우러져 화려한 밤의 궁정문화를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든 축제가 낮에 이루어 졌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밤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동이 틀 무렵까지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는데, 조명의 경우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가였던 수천개의 양초가 사용되었고 불꽃의 제조에도 높은 비용이 필요했던 점에서 일반시민에겐 먼 고급 축제였다.

현재 유럽의 대표적인 빛 축제로 프랑스 리옹의 빛축제 (La fete des lumieres)가 있다. 매년 12월 8일 성모마리아에게 감사드리는 날을 전후해 4일간 리옹시 전역에서 열린다. 12월 8일의 기원은 성모마리아에게 리옹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999년 시작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리옹의 빛축제는 예술과 이벤트, 경관조명이 어우러지는 유럽의 최고의 빛축제로 자리매김했다.

Light was recognized as a part of the ritual for extensive experience in size, brightness and destruction of frame.

For Europe, light and fireworks took over the bonfire for congratulations. Fireworks reached a peak in the Baroque Age leading the court culture at night with splendid firecrackers and light bombs. While all festivals were celebrated during the day in the Middle Ages and Renaissance, people during the Baroque Age enjoyed night festivals. At that time, kings and aristocrats enjoyed the night culture until the dawn.

Such night festivals required substantial expenses. For lighting, thousands of candles, which were absurdly high priced, were used. In addition, flame manufacturing also required substantial expenses. Thus, the festivals were deluxe festivals that the public could not join.

One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light festivals in Europe is La Fete Des Lumieres held in Lyon, France. The festival is held all over Lyon for 4 days around Dec. 8 every year, the day to thank the Virgin Mary. December 8 was the holy day on which the Virgin Mary saved Lyon. For this reason, the festival is held around that day to express gratitude to the Virgin Mary.

La Fete Des Lumieres in Lyon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1999, it has become the best light festival in Europe where the arts, events and scenic lighting are well harmonized.

리옹의 빛 축제는 예술성과 시민의 참여가 공존하는 컨셉을 기본으로 리옹의 건물과 다리 등이 새롭고 환상적인 빛으로 단장되고, 광장과 더불어 거리와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규모감 있는 작품에서부터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소규모 작품 50여개 이상의 조명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선보여진다.

도시마케팅 전략 차원에서는 오래되고 고유한 방식으로 지어진 도시의 문화유산적 건물들의 가치를 현대적이면서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빛 축제 콘텐츠의 예술적 가치와 국제적 명성은 전 세계 빛관련 예술가와 조명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번 2009광주세계光엑스포의 3대 행사 중 한 축인 '빛 축제'는 리옹의 빛축제를 모티브로하여 '광주, 빛으로 물들다'라는 테마로 금남로와 구도청 일대에서 펼쳐지게 된다.

2009년 10월 9일 2009광주세계光엑스포 개막과 동시에 연출되는 '빛 축제'는 11월 1일까지 '빛 디스플레이'(거리경관조명, 건물경관조명) '빛 이벤트'(건물 영상쇼, 메가쇼-10월의 마지막 밤)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거리경관조명은 금남로와 웨딩의 거리, 충장로, 광주천을 새로운 거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건물경관조명은 광주우체국, 광주독립학생기념회관, 금남로 공원, 건물 영상쇼는 구도청과 전일빌딩, 메가쇼-10월의 마지막 밤은 구도청 민주광장에서 빛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시민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광주라는 도시공간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구도심 일대를 빛 축제 장소로 구성하여 연출하는 기법은 기존의 국내에서 펼쳐졌던 1~2개 장소에 국한된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빛축제의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축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빛 축제'가 가지는 3가지 핵심 구성요소에는 지역특성의 빛, 창작연출의 빛, 참여시민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특성의 빛은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잘 간직한 역사, 사회, 경제, 문화의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을 구축하여 도시매력의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든다.
창작연출의 빛은 예술과 접목된 빛으로서 세련된 공간 환경을 구성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고 도시 자체의 브랜드화를 이끌어 낸다.
참여시민의 빛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실현하는 사람중심의 빛으로 연출하는 작업으로 빛을 만지고, 체험하는 인터렉티브 형태의 기법으로 구현된다.

Based on the concept that artistry and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are harmonized, La Fete Des Lumieres of Lyon decorates the buildings and bridges with new and fantastic light. Furthermore, lighting projects ranging from large works to about 50 small works are presented to the citizens on the streets and alleys as well as the squares.

In terms of the city marketing strategy, the buildings with the value of cultural relics that were uniquely built in the past are changed to have modern and new values.

Moreover, the artistic value and international fame of the light festival contents enhance the value of the festival as a global festival where light-related artists and lighting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be found.

As one of three main events at 2009 Gwangju World Photonics Expo, the "Light Festival" will be deployed around Geumnam-Ro and the old provincial office. The theme is "Gwangju Dyed with Light," with La Fete Des Lumieres of Lyon as the motif.

The "Light Festival," to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opening of 2009 Gwangju World Photonics Expo on October 9, 2009, comprises of a "Light Display" (scenic lighting on streets and buildings) until November 1 and a "Light Event" (building light show, mega show - on the last day of October).

The scenic lighting on streets will change Geumnam-Ro, Wedding Street, Chungjang-Ro and Gwangju-cheon into new streets and that on buildings will be created on Gwangju Post Offic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Hall and Geumnam-Ro Park. The building light show will be presented on the previous provincial office building and Jeonil Building. A mega show will allow citizens to enjoy the various experiences related to light in Minju Square of the previous provincial office building on the last day of October.

The technique to decorate the area around old downtown, considered a miniature of the urban space "Gwangju" for the light festival, is an approach to set up the festival model in a new form beyond the small light festivals restricted to one or two places that were held in Korea up to now.

Three key elements of the "Light Festival" of Gwangju are the light of local characteristics, light of creativity and light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light of local characteristics builds the foundation creating competitiveness of the city and enhancing the attraction of the city by producing a comprehensive story about history, society, economy and culture preserving the uniqueness of local cultures.
The light of creativity elevates the value of the city and leads to the brandization of city by organizing an elegant environment using light integrated with art.

이러한 광주 '빛 축제'의 빛은 광주시민 모두가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 문화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공간연출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시민이 함께하는 빛과의 소통, 대화,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은 광주의 공간적 감성을 더 풍요롭게 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 '빛 축제'의 또 하나의 핵심가치는 바로 광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주 광산업체의 역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이다. 광주 '빛 축제'가 선보이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은 광주 광산업체의 LED와 부품등 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광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광산업의 가치가 '빛 축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번 광주 '빛 축제'는 세계적인 조명디자이너이자 빛의 거장인 프랑스의 알랭귈로(Alain guilhot)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알랭 귈로는 프랑스 셍떼띠엔(saint-etienne) 출생으로 architecture lumiere社를 창설한 30년 경험의 조명업계 대가로, 프랑스 정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인 레종 드 뇌르를 받았다. 레종 드뇌르는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이나 문화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상으로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하였고, 이후 장 프랑수아 밀레, 퀴리 부인, 달아이 라마, 파울로 코엘료, 도미니크 페로 등 유명 인사들이 받은 훈장이다.

The light of citizen participation is embodied by the interactive approach enabling citizens to touch and experience the light and focusing on those who enjoy and realize cultural life.

The light in the "Light Festival" of Gwangju helps all citizens enjoy the cultural life and happiness and enables them to create a space of new meaning in the tradition, history, culture and environment of G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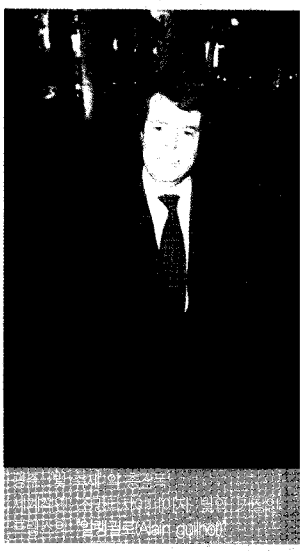
Communication with the light and the communication processes by which citizens talk, meet, see, hear and feel, will enrich the spatial emotion of Gwangju.

Another key value of the "Light Festival" of Gwangju is the fact that the festival can demonstrate the capacity of optometric industry of Gwangju leading the future industry of Korea in Gwangju. The beautiful festival of light presented by the "Light Festival" of Gwangju will be comprised of LEDs and parts from the photonics industry of Gwangju.

The value of the photonics industry that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 as well as be the hope of Gwangju will be more concretely and symbolically acknowledged to all Korean citizens through the "Light Festival."

Alain Guilhot of France, the master of light as well as the world-famous lighting designer, will supervise the "Light Festival" of Gwangju as the executive director.

Alain Guilhot was born in Saint-Etienne, France and is a master in the lighting industry, with 30-years of experience. He established Architecture Lumiere and took the Legion d'Honneur, the most honorable medal for an individual by the French government. Legion d'Honneur is directly awarded by the President to



알랭귈로/Alain guil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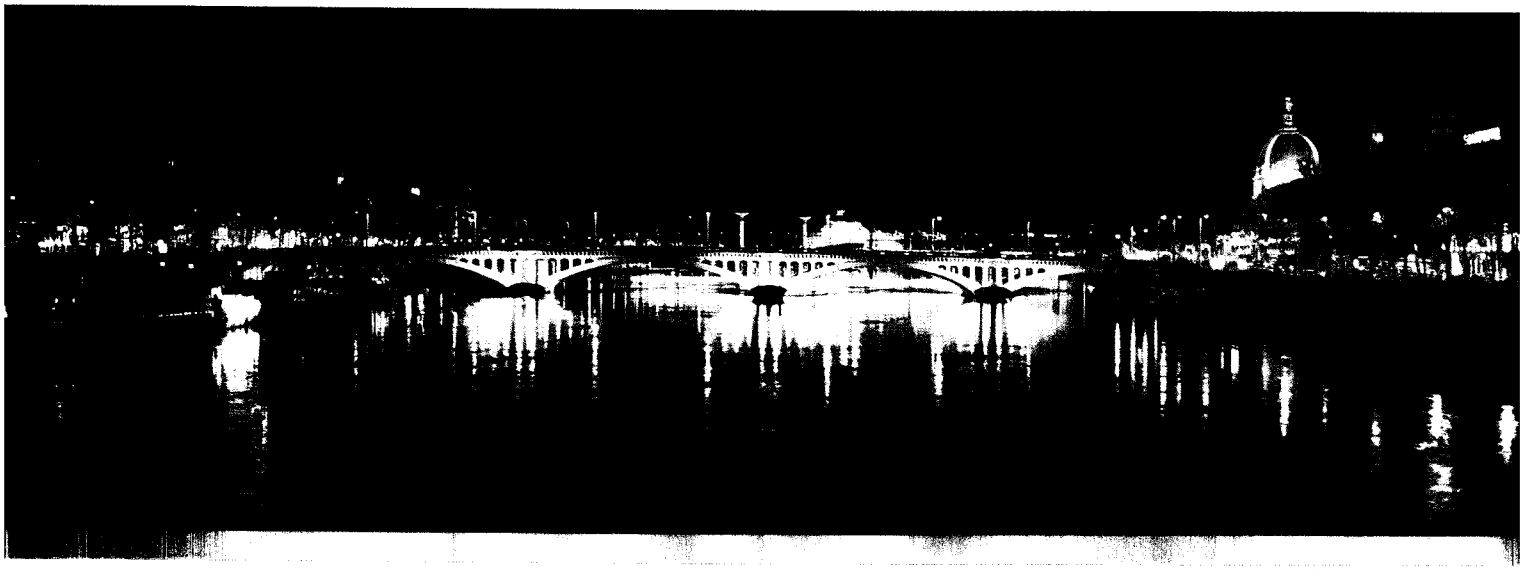
알랭귈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쌍둥이빌딩, 중국 상해 동방타워, 중국 천안문 등 400여점의 조명작품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랭귈로 총감독은 빛의 도시 광주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빛 도시 중심으로 자리잡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총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10월 세상의 모든 빛을 만나게 되는 광주에서 '빛 축제'의 빛은 광주시민과 더불어 전 국민에게도 희망의 빛, 미래의 빛으로 가슴 깊이 새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those who provide meritorious service in war or cultural achievements. It was established by Napoleon Bonaparte in 1802. Since then, a number of celebrities including Jean Francois Millet, Madame Curie, Dalai Lama, Paulo Coehlo and Dominique Perrault have received this award.

Alain Guilhot created about 40 lighting works including the Eifel Tower in Paris, France, Twin Towers in Kuala Lumpur, Malaysia, Orient Tower in Shanghai, China and Tiananmen in China, and has been actively carrying on other projects across the world.

Carrying out his rol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Light Festival, Alain Guilhot acknowledged that he would make every endeavor to make Gwangju, the city of light, be the leader of light cities in the world beyond Asia.

The light of the "Light Festival" in Gwangju that will allow you to meet all kinds of lights in the world in October 2009 will be impressed deep in the minds of all the people in Korea as well as in Gwangju as the light of hope and light of future.